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외교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교구 찬양으로 얻는 영적 부흥의 은총

2008년 1월 6일, 찬양예배 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구 찬양

지난 5월 27일 찬양예배 시에 1교구부터 시작된 교구 찬양이 오늘 찬양예배 시, 24교구의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교구 찬양을 준비하면서 각 교구 식구들은 성령의 은혜로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골 3:16) 또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전 1:9) 모임의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닌, '보혈의 은총'이 있었기에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은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찬양을 통한 영적 부흥의 은총이 2008년 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각 교구가 복음으로 하나되어 드리는 찬양을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완벽한 찬양이 아닌, 자기부인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교구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은 모든 교구의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 71:23)

찬양과 감사로 풍성한 주님의 교회

이번 주 금요일(16일), 제8회 충현 찬양의 밤

다음 주일(18일),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3부 예배 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는 찬양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께 서 세워주신 교회의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연주대의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 15:3) 총 15개의 팀이 찬양을 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연합 찬양대와 모든 성도가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레 19:6) 이 날에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교구 구분 없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07년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의 만사 형통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여야 합니다. 2·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연합예배입니다. 영아·유아·유치부·고등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자체 예배는 없으니,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딤후 5:8)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

- | | |
|-----------------------------------|----------------------------------|
| ① 크리스마스 선지자(이사야 2:1~5) | ⑥ 휴전인간 평화인간(빌립보서 4:1~7) |
| ② 미라라 현재를 만들어 준다(데살로니가전서 3:11~13) | ⑦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이사야 7:10~16) |
| ③ 아직도 세미한 은혜(이사야 11:1~10) | ⑧ 아기 예수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히브리서 1:1~3) |
| ④ 분열과 파멸(빌립보서 1:3~11) | ⑨ 즐거움(이사야 9:2~7) |
| 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이사야 35:1~10) | |

하기 싫은 사역 (디도서 2:11~14)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다. 이 때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온 한국이 움직인다. 미국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 미국이 움직인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피곤한 여행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은 단지 육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도 종종 하기 싫은 사역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 디도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와 같은 내용이다.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로부터 불평을 들었다. 그레데는 지중해의 네 번째로 큰 섬으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다. 그런데 그레데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다. (딤후 1:10~11) 그레데지역의 교회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인해 복음이 흐려져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딤후 1:12~15) 그래서 바울은 목회지침을 주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롬 1:17; 엡 2:8) 그러나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는 이곳을 하루 속히 떠나고 싶었다. 디도는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다. (고후 8:16, 8:23~24)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지역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것이다. (고후 8:6) 따라서 디도는 이곳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다. (딤후 2:15) 디도는 행복을 그레데에서 찾아야 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천국일꾼을 양육해야 했다. (딤후 3:1~4)

바울은 디도가 처한 목회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출 것을 강조한다. (딤후 2:11)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 (딤후 2:12~13)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총은 디도에게 허락되었고,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의 나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친백성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버려야 낼 수 있는 것이다. (딤후 2:14) 은총은 디도의 목회가 그러하였듯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어 보이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게 한다. (히 4:12~13, 5:7~9)

디도에게 쓰여진 디도서는 디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주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시고, 그대로 사셨다. (히 10:9~10) 베들레헬의 말구유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이다. (딤후 2:12~13)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나타났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거들던 신자의 삶을 양육하시며 가르치신다.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골 3:1~4) 그리스도가 초점이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자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였다. 과거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도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세상에 오심을 기념한다. 이보다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레 22:20) 아멘.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2 Corinthians 9:15)

The Bible overflows with thanksgiving! Throughout both testaments, true believers express their appreciation to God by praising and giving thanks to Him. After crossing the Red Sea on dry ground, Moses and the sons of Israel sang to the Lord,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this is my God, and I w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 will extol Him." (Ex. 15:2) Paul and Silas, after being struck with many blows and putting in prison, began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 (Acts 16:25) The Bible clearly reveals that when you think about God your heart always has thanksgiving, but when you think about your own desires, your heart always complains. In the exact same environment, some people appreciate God and others complain to God. Psalm 100:3-4 say, "Know that the Lord Himself is God; it is He who has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Do you really appreciate God? Do you have uncountable thanksgiving for Him in your heart? True servants of the living God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Real Christians are thankful for Christ. Are you truly grateful to God for Jesus? Do you know why you should be thankful for Christ? Without Jesus, you cannot come to God. Paul met the resurrected Christ on his way to Damascus. He asked Jesus who he was, and Jesus told him,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Acts 9:5) I am pretty sure Paul thought about this moment often and had great appreciation in his heart. Do you have this kind of appreciation in your heart because of Jesus Christ, or does your thanksgiving concern money, prestige, and other worldly matters? Jesus overcame death and sin. He has the victory,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7) His resurrection brings you an opportunity for a changed life. 1 Corinthians 15:51-53 tell us,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This change is only possible because of Jesus. Look at Paul, who killed Stephen and persecuted Christ. Jesus still met him and changed him. Ephesians 2:8-9 say,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Do not be proud of yourself, but humble because you are a sinner. If you have Jesus Christ right now, then you should continually appreciate and give thanks to Him.

Real Christians are thankful to God for other Christians. Are you truly thankful to God for other believers? Do you know why you should be thankful for other Christians? Without other Christians, you cannot experience the precious and refreshing blessing of Christian fellowship. Paul wrote to the Philippians,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Phil. 1:3) and he wrote to the Romans,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you all, because your faith is being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Rom. 1:8) Paul was grateful to God for giving him Christian friends. Jesus say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Jn. 13:34-35) Sometimes Christians do not live up to their potential, do not talk like Christians, and do not walk like Christians, but as Christians we can love and pray for them. A Christian heart should long to see other saints and be ever so thankful to God for all believers. Can you be thankful for those sitting around you now? Remember! These special children of God will be living with you in heaven forever.

Real Christians are thankful to God no matter what. Are you thankful to God all the time? Do you know why you should be thankful no matter what? 1 Thessalonians 5:18 says,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Whether someone stones you, puts you in jail, or humiliates you, you should be thankful to God. Whether you lose all your material wealth and become shipwrecked or placed in a very hard position, you must remain thankful. Jesus is going to return soon and welcome you home. Everyday He awaits your thanksgiving. Are you thankful? If not, why not? A heart that focuses on God cannot lack thanksgiving, but a heart that centers on trouble will have trouble.

My dear friends, please be thankful everyday, and so honor our Lord Jesus Christ.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Before you walked into this church, was your heart dark, depressed, or filled with anxiety? If so, please pray to the Lord God and thank Him for Jesus Christ, thank Him for your Christian friends, and please ask Him to help you to thank Him no matter what situation you face. God's love fills the darkness, brings great joy, and takes away all fears. Do you believe it?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김성만 목사

성경은 감사로 넘칩니다! 신구약을 살펴보면 참 신자들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 15:2)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행 16:25)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평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시편 100:3~4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 신 줄 너희는 알지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제복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은 감사해야 할 아주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뉘시오나이가”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5) 확신하건대 이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같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다른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7)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5:51~53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만나 주셨고 결국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믿는 자들로 인해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복돋아 주는 그 소중한 교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빌 1:3) 또한 그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롬 1:8)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지도, 그리스도인처럼 걷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 보기를 진심으로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모욕을 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파산 상태가 되어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문제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곳에 걸어 들어오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낙심되고, 격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고,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며, 온갖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

2007년 제3차 청지기문련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하박국 3:2)

이기적인 죄인의 눈물

직장에서 언젠가 자기가 선택한 일 중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토론한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종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들 경계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소심한 나로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장하지 못하여 이후 마음 한 구석엔 늘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살았다. 답답한 마음으로 지나가다 언젠가부터는 기억 지력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반 청지기훈련에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신 종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었다. 매번 습관적으로 입 밖으로 중얼거렸던 주기도문(‘주기도’)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운 의미로 한 소절씩 다녔다. 예전엔 느껴 보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뒤틀리지 못한 나를,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나를 알기라도 하신듯 내 마음을 꾸짖고 계셨다.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속에 흐르는지 나를 변화시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나를 영적으로 깨어지게 만드셨다.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맘속의 고인, 내 뜻대로 하고픈 욕심, 이 세상의 고민거리가 가득 찬 마음을 걱정거리가 아닌,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찬란한 새벽’과 ‘종려나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도 이기적인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켜 엿걸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했다. 나에게 두 가지 길을 확실한 길로 주셨다. 알곡의 길과 쪽집이의 길! 난 어떠한 것이 답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알곡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한 실천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한다.

박병휘(후사, 청년2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던 날

1983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지 24년이 되었다. 예배는 물론 전도 활동 등 각종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았다. 직분을 받으면 순종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지난 24년간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마음의 평안도, 성령의 열매도 거의 없다. 10월 26일, 제3차 청지기훈련은 총현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큰 행사들을 반영하듯 정해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본당이 채워지고 갈릴리움 등 여러의 예비된 방이 모두 채워졌다.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워 주신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이 무시되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세상의 축복을 주님의 축복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권면한다. 은혜의 종교를 노력의 종교로, 윤리 도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개인과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거룩한 분노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어조는 비장했으며, 설교가 계속되면서 모두가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또 자주 교회를 비판한다는 말씀과 교인들 간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실종되고 사실적인 화제만이 난무하여 교회가 마치 사교 모임처럼 되고 있다는 말씀에서는 고개를 틀 수가 없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과 교제의 교제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서 내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은총은 간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그것이다.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만 했으니 얼마나 고만했었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만한 지식, 교만한 경험, 교만한 전통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은총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회개했다.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귀를 여십시오.”라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말씀이 또래 나이의 기도자 되어 은혜가 넘쳤다. 청지기훈련, 그 날 맑은 세상 열려와 무거운 짐에 허덕이던 내 영혼에 밝은 햇살이 비치던 날이었다.

이인용(후사, 12교구)

주여 생명의 힘을 주소서

갑갑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어디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니 지금의 암흑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청지기훈련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캄캄한 동굴에서 출구를 찾으면서 절박함에서였다. 서둘렀지만 본당에는 지리가 없었다. 갈릴리움로 가면서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숨이 멈추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너무 쉽게 불평하는 나, 종교적으로 변한 나, 외식하는 나, 나는 죄악투성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소리 없는 흐느낌에 목이 매인다. 그리고 잊혀졌던 주님과 교제의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것은 ‘교회와 나의 영적 부흥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었다. 주님의 은사를 따라가면,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걷는 나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생명의 힘을 주소서!”

이항진(전사, 13교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지내 온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 가던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홀리스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나도 주님 앞에 같은 믿음과 고백을 드린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감당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기에 근심과 열려에 놀리고, 나의 입술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세상의 허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기에 삶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다시 결심하고 노력해 보지만 여전히 넘어질 뿐이다.

이런 나에게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주신 하박국 선지자의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셔야 하는 것이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생명의 힘이 부어져서 주님의 종인 복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내 안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르며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생명력을 부어 주옵소서. 각자 개인 안에, 가정에, 교회에 주님의 부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김경희(전사, 7교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직장이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곳이라 금요일에 교회에 오면 늘 지각이었다. 그래서 청지기훈련 전에 조퇴를 하고 일찍 교회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는 아쉬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번 청지기훈련 때 주님은 그런 내 마음을 혼돈여 주셨다. 마음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일은 또 얼마나 많았었나?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몸을 맡긴 적은 또한 얼마나 많았었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반 청지기훈련 때 찬송가를 인내하여 말씀 중간 중간에 부르게 하여 너무 은혜가 되었다. 나는 비록 찬송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가사마다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찬란한 새벽’을 마음속에 그리고, ‘거룩한 새벽’을 바라보며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정지호(에바다부)



성령님의 만지심에 홀린 눈물

제3차 청지기훈련을 앞두고 구역 식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증현의 만나>를 들고 구역을 돌며, <주간 중현>과 교구에서 예쁘게 준비한 초대장을 들고서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심령과 입술엔 간구가 이어졌다. “주님,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감동의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내 심령에, 우리 구역 식구들 심령에 회복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10월 26일, 금요일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찬란한 새벽 슬픔 없고 승리의 주님 곧 오시리 찬란한 새벽 우리 위해...”라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심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큰 슬픔을 겪기 전엔 주일예배와 봉사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직장가 가정일로 더 바쁘게 세상의 즐거운 삶에 안주했던 믿음이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내 기쁨과 내 위안을 삼으며, 주님과 세상 것을 함께 붙들었던 어리석은 어둠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은총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영원한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더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눈물 흘린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정원희(집사, 6교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어머니와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른들 중심의 훈련이라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참석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절 한 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읽아가는 성경 구절이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부흥하는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서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나다.

특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거저된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주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청지기훈련 때 받은 책자 속에 적힌 말씀을 다시 보면서 특히 목사님과 함께 고백한 시편 51:11~12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정인(중동2부)

청지기훈련 날이다. 함께 갈 사람들과 전화하여 약속 시간 줄은 후 그들의 교통편을 체크했고, 미리 만나 식사를 하였다. 훈련 시작 20분 전에 본당에 자리를 잡았으나 뒤늦게 오는 이들이 ‘혹시나 못 오면 어떡하?’ 하는 걱정으로 자주 뒷자리로 눈길이 가곤 했다. 끝까지 몇 사람은 보이지 않아 속상했지만 ‘갈릴리온이나 베다니촌에 늦게라도 오고 있었지!’ 하면서 미리미리 생각하며 예배 시작 전에 어수선한 마음을 가다듬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메운 가운데 “교회가 영적 부흥”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박국 3:2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반사되 빠져들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너무나

나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는가?

이번 청지기훈련은 나에게 내 자아가 항상 깨어져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교회를 지칭하는 멋있는 건축물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과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아니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나 한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보시기 이전에 먼저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한 영혼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항상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겸손한 자를 원해서’라고 머리로 알고 생각은 날마다 해 왔다. 그러나 한때, 겸손했던 나의 지난 신앙을 추억하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드릴 수 없었다. 정말로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매순간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설교 시간 내내 위임목사님의 울부짖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함 같았다. 나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는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생각하였다. 패역한 시대에 귀한 말씀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진정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란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승인(대학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날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 목사님은 나의 생각과 하루의 생활을 그대로 보신듯 말씀하셨고, 난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기 힘들어 그저 회개의 눈물만 흘렸다.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던 찬양곡들을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부를 때의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큰 은혜였다. 특별히 <주기도>의 전주가 흘러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찬양을 부를 때는 가슴이 벅차 올라 잘 부르지도 못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삶을 주창하셨고, 또 앞으로의 삶도 주관해 주실 것을 믿는다.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험당함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에 받는 고통임을 알게 하였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였고, 세상과 구별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것, 내 힘으로 바꾸어 보려고 바둥거렸던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요구하는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아멘.

이수진(집사, 11교구)

죄인을 부흥시켜주신 예수님

무단 삶을 살았고, 자기 부인을 입으로만 말하고 다녔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라곤 죄밖에 없지 않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복음이 눈앞에 내려져도 무감각했던 나, 세상이 절대로 채워 줄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했던 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잊었던 나, 말씀이 인내된 면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나의 마음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하였고 회개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미련하고 죄만 짓는 죄인을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임영희(권사, 14교구)

마가복음 강해 ②

*매주 월요일세례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

(1:1~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되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행 10:36~37) 특히 구약성경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출 23:20)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말 3:1; 막 1:2)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였다.(사 40:3)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마가복음 1:3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관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 이같이 복음은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강박한 대로 행하였다.(렘 18:12)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받았다.(호 3:5; 겔 36:25~26) 이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거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듯이(고전 10:1~2)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

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막 1:5)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관아에서 40년을 생활했다. 관아에서의 이스라엘 삶은 빈곤하지 않았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신 8:16; 느 9:21) 그럼에도 사탄에 의해 마음이 미혹(시 95:10~11)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관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렘 20:13)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관아를 맴돌게 한다. 이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은 회개이다. 겨자씨처럼 작을 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세례가 있는 관아에서 ‘은총의 문’을 발견할 것이다.(사 43:19, 51:3; 호 2:14)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다.(마 3:12; 눅 3:17; 사 11:4)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준비는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도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막 1:7~8) 세례 요한은 복음의 소리가 되어 관아를 은총의 장소로 바꾸었다. 우리도 관아로 나아가자.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총, 성령세례를 받자.(마 3:11; 눅 3:16)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부끄러운 대답밖에 없습니. 왜냐하면 내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열려와 근심,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연약한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나의 믿음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내 믿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여 내 길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연약함으로 인해 허망하는 저를 예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은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살아 있는 능력이 걸길로 가려는 죄의 영혼을 불드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저는 흐뭇합니다.

김미애(집사, 8교구)

고난은 아름다운 보석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돌며 가슴속 깊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로 가득할 때 우리 가정에 시편이 찾아왔다.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8년 겨울이었다. 그날은 금요찬양집회 때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날이었다. 남편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날을 위해 연습했는데 끝내 그날 저녁 찬양을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날을 시작으로 입원과 퇴원은 반복되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질 않았다. 뚜렷한 치료도 약도 없이 심장의 박동이 조절이 되지 않고 심할 때는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몸무게는 너무 줄어서 정말 배만 남을 정도로 잘 길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느라 잠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매달렸다.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외에는 할 수 없었다. 그때 많은 분이 기도로 힘을 주셨다. 나는 기도의 소중함을 지금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주님을 향한 기도는 계속되었고, 치료도 계속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사설 이전에 나는 내가 교회에 가는 줄 알았다. 나의 의지로 내가 걸어서 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교회도 갈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아주 조금씩 남편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던 어느 금요찬양집회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발자국 두 발자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저요! 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을 때 순간 주님이 나를 안고 그 힘든 길을 가는 모습이 뚜렷되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남편은 2005년도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전에 못이 아파 하지 못한 〈할렐루야〉를 찬양했다. 그때의 하나님께 드린 〈할렐루야〉는 남편과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잊지 못할 찬양이었다. 지금 남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예배와 금요찬양집회 그리고 소망부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은 주셨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만나주셨다. 아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 때에 비로소 느꼈던 것이다. 그 고난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지금 내 안에 찬란한 빛을 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를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신애(집사, 15교구)

예수쟁이의 선교

어렸을 때 내 고향 마을에 잘 생긴 서울 사람 두 명이 찾아와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칠 때 난 부끄러워 도망치면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현재 시골 내 고향 마을은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예수쟁이, 예수쟁이” 하고 놀렸던 나 또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신앙 생활을 한 지도 5년이 되었다. 세상 친구들은 나에게 “예수쟁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다. 난 그 말이 참 좋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말씀을 뿌리는 자의 직분을 맡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이전에 우리 팀은 8개 교구가 연합한 팀이다. 그래서 혹시 하나 되지 못함을 걱정했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팀장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화목되는 놀라운 은사를 우리 팀에게 허락하셨다. 선교지는 특성상 전도지를 가지고 갈 수 없었고 노방전도도 할 수 없었고 한 마을에 30분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고, 두 번 언론하신 권사님의 어머니 같은 기도로 많은 힘을 얻었다.

기회가 되어 작년에 갔던 내 고향길과 꼭 닮은 마을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지난 해 선교 후 꼭 1년 만인데 유난히 보고 싶은 부부가 생각나 그 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는 우리를 알아보고 반가이 맞아 주었다. 작년에 복음을 전할 땐 겨우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들이 이번엔 아들까지 불러 앉혀 놓고 기쁜 소식을 끝까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을 흘려주었다. 이곳도 시골 내 고향 마을 같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이곳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리라 확신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다.

박종운(집사, 8교구)

영성 심사 때 고백하고 다짐했던 말씀

우리 팀의 사역지는 특성상 지례로운 정탐과 사역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해 두 명씩 다섯 조로 나뉘어 20여 분 안에 노방전도나 한두 집 정도 축조전도를 한 뒤 재빨리 다음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많은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 앞에 꼭 이끌어 내도록 “양보다는 질적인 선교”를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한쪽에서 왔다는 인사말만 했는데도 고향을 지르고 욕하는 듯 화를 내 시던 할머니를 만난 첫 사역지를 비롯하여, 어느 나라 어느 사역지에도 그렇듯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안고서서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다.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힘 주심을 간구하며, 영성 심사 때 고백하고 다짐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역지의 힘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몸이 조금 아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힘껏 외치며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배타적인 영혼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은선(권사, 팔월루아 전당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2일(월) ~ 11월 20일(화)	3·1·2·4교구 연합	이부성
11월 13일(화) ~ 11월 21일(수)	9·10·18·22교구 연합	김을필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5일(월) ~ 11월 14일(수)	1교구·대학부 연합	구원섭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교구 간사	임연수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24·7·8교구 연합	한만교

다듬지 않은 돌

찰스 스펔전(Charles Spurgeon, 1834~1892)

하나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만 했다. 인간의 재주나 수고를 찾아보지 못하게 되어야 했다.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의 은총을 다듬고 장식하여 타락한 본성의 착함에 어울리는 인위적인 체계로 만들어내기를 즐긴다.

육욕적인 지혜는 복음을 발전시키는 거령 오히려 부패하게 하여 마침내 다른 복음, 전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의롭다하게 해 관여하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꾸민고, 겸손함과 회개를 의뢰하며, 선함을 칭찬할 때와 같은 감사를 자랑한다. 신자들에게는 계시의 진리를 조정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잘못된 비평이나 불신앙이다.

당신은 그것들에 맞서 싸우며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이다. 말씀의 고리들은 다듬지 않은 돌이요 주님의 제단을 쌓기에 합당한 돌이라는 사실로 기뻐하라.

대속사역에 있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다. 인간의 것이나 감지를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루신 것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모독행위이다.

두려워 떠는 죄인들이여! 내 연장을 치우라.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라. 주 예수를 당신의 속죄의 제단으로 받들들이며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라.

*지금, 2006년 선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나의 준비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 호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 호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 호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1723	김종주	4 초동부	강영희(12)	1738	함	25 외선부	황영이(5)	1753	옥현주	5 청년1부	남승은(18)
1724	백석호	9 청년1부	고정섭(4)	1739	송	25 외선부	박진성(3)	1754	황원길	6 장년3부	김선재(1)
1725	라경선	25 외선부	김성태(2)	1740	블라이케	25 외선부	이은희(20)	1755	조광근	22 장년2부	백은설(22)
1726	박광만	25 외선부	김성태(2)	1741	주영민	25 외선부	이은희(20)	1756	신민섭	8 유년부	이안희(16)
1727	양국자	25 외선부	김종수(12)	1742	테리사	25 외선부	박진성(3)	1757	박정민	9 장년1부	김광선(8)
1728	수신호	25 외선부	박성갑(15)	1743	왕	25 외선부	박진성(3)	1758	김정환	13 청년1부	김광준(2)
1729	반박	25 외선부	김지영(7)	1744	목덕면	25 외선부	김지선(7)	1759	이은경	1 청년2부	최준호(20)
1730	박무	25 외선부	김지선(7)	1745	최정민보영	25 외선부	김지선(7)	1760	김낙수	18 고동부	강문규(20)
1731	이정희	9 외선부	김봉재(9)	1746	권오현	22 청년2부	김은미(4)	1761	최병애	15 장년3부	김 광(3)
1732	구정현	9 외선부	김봉재(9)	1747	김성일	22 청년2부	권진우(6)	1762	정유나	13 초동부	김선지(8)
1733	홍	25 외선부	신교안(24)	1748	권희재	22 유년부	김정애(6)	1763	박주선	1 청년1부	박윤석(9)
1734	김남	25 외선부	신교안(24)	1749	한나	25 외선부	노수희(4)	1764	김정민	15 장년2부	김정희(24)
1735	홍	25 외선부	김지영(7)	1750	김현우	22 청년2부	김정애(6)	1765	황석재	18 대학부	김정희(18)
1736	김	25 외선부	김지영(7)	1751	이덕호	22 청년2부	임무희(22)	1766	김정환	2 유년부	김정희(18)
1737	피재	25 외선부	황지희(6)	1752	한순호	13 소년부	최윤영(13)	1767	조주연	1 청년1부	김정희(18)

* 총연합회의 한 기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정기 담회

일 시 : 14일(수), 2부 예배 후
장 소 : 당회실

별 세

1. 박순연 참도(이성경 집사의 모친, 이경화 집사의 시모, 5교구 일원전2구역) / 1일 밤새, 3일 장례
2. 김용태 태고성도(김영옥 집사의 부친, 강광철 성도의 장인, 18교구 사망구역) / 2일 밤새, 4일 장례
3. 백길용 태고성도(백옥희 집사의 부친, 이종환 집사의 장인, 12교구 장안구역) / 3일 밤새, 5일 장례
4. 김신희 참도(이현상 성도의 부인, 이병주 성도의 모친, 3교구 삼복3구역) / 3일 밤새, 5일 장례
5. 양영조 태고성도(양옥자 집사의 부친, 이영관 성도의 장인, 6교구 장안1구역) / 4일 밤새, 7일 장례
6. 박석출 태고성도(이봉춘 은관신사의 사부, 22교구 안산1구역) / 5일 밤새, 8일 장례

결론

1. 한재구 군(한성원 집사·송행자 집사의 아들, 5교구)과
김금주 양(김평도 성도, 박명남 성도의 딸, 타교회) / 17
일(토) 오후 3시, 남서울 웨딩홀 1층(신사동)

◆ CMTC 팀장 훈련

일시 및 장소 : 11월 14일(수) 저녁 8시, 본당 112호
11월 16일(금) 저녁 11시, 충현기도온
대상 : 아수전사 전원

◆ 감사위원회 2007년 하반기 정기 감사

대상기간 : 2007. 5. 1. ~ 2007. 10. 31.
장소 : 감사위원회 (제1교육관 503호)
대상부서 및 일시 : 찬양위원회 소속 전 찬양대, 11월 11일 (오늘), 10:00~16:30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시 : 여전도회 11월 14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11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1,5,9,13,17,21교구)-301호 2지회(2,6,10,14,18,22교구)-307호
3지회(3,7,11,15,19,23교구)-401호 4지회(8,12,16,20,24교구)-407호

2008년 제3차 CMTC 훈련 (교육과정: 3주간, 장소: 갈릴리움)

◆CMTC 선교훈련

시 간	11월 11일(오늘)
18:10~19:10	제3강 종교 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19:10~19:30	제4강 선교 영상 기도회

*호러 당일 오후 3시부터 각별리호 인근에서 수감신청

◆CMTC 직무훈련 : 11월 24일(토) 09:00~12:00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이계인	최성규/최남아	이재영/이용원	이경준/김종만	김준희/정윤환	윤수일/황승관	이희식/김정현
설교 본문	막 1:21-28	사 33:1-6	사 33:7-16	사 33:17-24	사 34:1-7	사 34:8-17	사 35:1-4

예배담당 안내 (11/14~11/1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1/14	수요 I	니희를 위한 하나님께 감사 (말 13:1-11) 김성관 목사	이경준	김영주	생명의 양식을 얻으신다(원주교회) / 주 하나님은 사랑은(호산나 찬양대)
11/14	수요 II	로마가 들어야 했던 복음 (로 4:17-25) 최종철 목사	최성득	박남남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성로합창 찬양대)
11/16	금요일향	김성관 목사	김성관		제8회 종헌 찬양의 밤
11/18	주일 I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최강진 목사	최성득	김규식	(예배 전 찬양)
11/18	주일 II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김성관 목사	유현철	강철형	묘한 세상 주시고 외 / 소년부 찬양단(지도: 김민우)
11/18	주일 III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김성관 목사	정진호	최영민	주 예수 님은 바에 외 / 여성찬양팀(영광교회 찬양대 솔리스트)
11/18	주일 IV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최성규 목사	정진호	최희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외 / 할렐루야 온성찬양단(지도: 이수진)
11/18	주일 V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이경준 목사	김철길	이희연	논밭에 오곡백과 외 / 내사 가정팀, 비서들 최영현(별천교회 찬양대 솔리스트)
11/18	주일강양	여호와의 송축하라 (시 103:1-5) 장 훈 목사	하종철	권영주	종헌 장로초창단 / 비올라 연주 / 별천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전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인침의	저녁 7:00	본 당
세례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과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과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과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과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5:00 (토) 오후 5:30	제2교과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8:00	제2교과관 4층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일철야회 부흥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예배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국,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3:10	배 다 니 홀
광 복	오후 12:15	강 원 리 홀
장 무	오전 11:00	복건관 지하1층
다 무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아 무	(주) 09:30~09:50 (위) 저녁 6:30~6:00	선교관 1층
양 육 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인 원 이	주강교육관	제1교육관 107호
인 원 교육	주강교육관	충현복지관
인 원 보	오전 11:30	인 배 호

11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되어 영적으로 부흥하는 주님의 회교를 세워 나가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모든 교구와 회교회교를 통하여 충현회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회원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와 '모든 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대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회교주변 전도를 통하여 회교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종인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위원회에 속한 전도와 재단(유지·홍산·복지)들이 복음으로 부흥하는 데 하나되어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남浦路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봉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008년 교구일꾼총회

일 시 : 11월 18일(다음 주일)

4부예배 후

장소 : 보당

*교구모임은 없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